

가을꽃으로 물든 화순 고인돌... 역사와 가치를 만나다

군, 16~25일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가을꽃 축제’

청동기 체험·캐릭터 포토존 등 콘텐츠·즐길거리 풍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이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서 ‘2026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개최한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올해 축제의 주제는 ‘꽃길 따라 만나는 천년의 이야기’다.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국화 등 가을꽃이 어우러진 경관을 선보여 가족 단위 관광객과 젊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는 화순 고인돌의 정체성을 강화한 ‘고인돌 유니버스(DM·DolMen)’를 축제의 주요 콘텐츠로 선보인다. 축제장에는 ‘짱들이 마을’을 중심으로 청동기 시대

의상과 놀이, 사냥, 장신구 만들기, 고인돌 작업소, 팔주령 비누 공방, 짱들이 과자 제작소 등 선사시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키카오프렌즈 캐릭터 ‘춘식이’를 활용한 콘텐츠도 마련된다. ‘춘식이 마을’에는 대형 춘식이와 어피치 에어별론, 캐릭터 포토존 등이 조성되며, ‘춘식이 역사로드’를 통해 고인돌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을꽃을 활용한 테마정원도 축제의 주요 볼거리다. 도곡 고인돌 잔디광장 일원에는 포토정원과 국화정원, 어린이정원, 나비정원 등이 조성되고, 국화 분재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춘양 지역에는 가족 단



지난해 열린 도곡면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축제를 즐기고 있다.

위 방문객을 위한 동물정원과 어린이 놀이터가 마련돼 축제장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공연 프로그램도 세대별 취향을 고려해 다채롭게 구성된다. 축제 기간 주무대에서 는 관현악, 밴드, 지역 예술인 공연, 버스

킹, 트롯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진다.

특히 △17일 ‘DM 트롯’ △18일 ‘DM 레트로’ △‘DM 록’ △25일 ‘DM 발라드’ 등 장르별 특별공연이 마련되며, 김다현, 나상도, 임찬, 홍경민, 박미경, 트랜스픽션, 현균연, 세계유산 고인돌유적 문화공연 등 다양한 연계행사가 축제 기간 함께 열린

다. 축제장 밖으로 이어지는 관광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춘식이의 모험’ 스탬프 투어는 축제장에서 화순고인돌전통시장까지 관광객의 발걸음을 연결하고, ‘도장 찍고 건강행기고’ 프로그램은 축제장과 운주사, 화순고인돌전통시장을 연계한다.

또 화순청소년문화유산해설사와 함께 하는 고인돌 유적지 탐방을 통해 과바위·관청바위·평매바위·감태바위 등 주요 유적을 둘러보며 역사와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먹거리와 지역 농특산물도 풍성하게 마련한다. 축제장에는 향토·단품 음식, 푸드트럭, 시그니처 디저트와 함께 농특산물 판매 부스를 운영해 관광객들에게 화순의 다양한 맛과 먹거리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화순문인협회 시화전, 제3회 도곡 농특산물 대축제, 선사시대 생활 재현공연, 세계유산 고인돌유적 문화공연 등 다양한 연계행사가 축제 기간 함께 열린

다. 광덕문화광장에서는 10월 17일 DM 트롯 출연 가수 팬사인회와 문화예술 프로젝트 ‘광덕 쿵덕’, 소상공인연합회 ‘상생한 마당’도 진행된다.

군은 2000면 이상의 주차 공간과 순환 버스를 마련하고 쉼터와 휴게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음식부스 다화용기 사용과 분리배출 스테이션 운영 등을 통해 관광객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축제 운영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맹우 화순군 관광체육과장은 “올해 축제는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의 역사적 가치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동시에 아름다운 가을꽃과 다양한 체험,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화순의 역사와 문화, 맛과 사람을 함께 만나고 지역 곳곳을 여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2026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치열한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청

전국 대학생 전기차 경연 성료...영광 e-모빌리티 열기 ‘후끈’

전국 45개 대학·2000명 집결...전남대 SEM 대상

숙박·음식점 등 10억원 경제효과...지역 상권 활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은 최근 한국자동차연구원 e-모빌리티 연구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2일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한국자동차 공학회, 한국자동차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45개 대학과 46개팀, 2000여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참가 학생들은 스스로 밤낮을 지새우며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전기차(EV)를 출전시켜 성능과 기술력, 창의성을 겨뤘다.

특히 올해 대회는 프레임과 범퍼, 볼류프 등 안전구조 기준이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돼 완성도 높은 차량 제작 역량이 요구됐다. 여기에 가속성능 경기, 주행성능

경기, 내구 레이스 경기 등 역동적인 종목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치열한 레이스 결과, 영예의 △EV부문 대상(산입통상부장관상·상금 500만원), △기술부문 최우수상(영광군수상·상금 100만원)을 전남대학교 SEM이 차지하며, 전남광주가 미래 모빌리티 인재의 산실임을 증명해 보였다.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대회 전후로 전국 대학생, 가족, 대회 관계자 등 일 평균 2000여명 이상이 영광에 체류했다.

이로 인해 숙박업소, 음식점, 관광지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약 10억원 규모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발생했으며,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었다.

장제일 영광군수는 “대회는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할 창의적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경기에 참가한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정신이 영광을 넘어 세계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g98@gwangnam.co.kr



함평대동우체국 이전 개소식에 참석한 이남우 군수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청

함평, 전남광주 첫 지자체-우체국 통합

대동면 행복배움광장...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전남광주 지역 최초로 지자체와 우체국의 공간을 통합, 주민 중심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12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대동우체국은 최근 대동면 행복배움광장으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이전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행정·우편·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공간통합을 위해 대동면 행복배움광장 내 일부 공간을 우체국에 제공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우체국의 공간 사용 기간은 오는 2031년 6월까지다.

이번 공간통합은 주민 편의를 위해

지자체와 우체국이 협업한 전남광주 지역 최초 사례로, 공공시설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이번 공간통합이 주민들의 기관 방문 부담을 줄여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남우 군수는 “이번 공간통합은 행정기관 간 경계를 넘어 주민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뜻깊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공시설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철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문자도 발상지’ 나주시, 전라도 민화 조명

11월 20일까지 빛가람문화체육센터...60점 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문자도의 발상지라는 역사적 의미를 바탕으로 전라도 민화에 담긴 삶과 소망, 지역의 정서를 되짚는 특별한 전시를 선보인다.

12일 나주문화재단에 따르면 가회민화 박물관과 협력해 나주빛가람박물관문화체육센터 1층 다목적실에서 기획전시 ‘전라도의 서정, 민화로 피다’를 오는 11월 2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사단법인 학국박물관협회가 주최·주관하는 ‘2026 공·사립·대학 박물관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 사업’에 가회민화박물관이 선정돼 마련됐다.

재단은 이번 전시로 가회민화박물관이 소장한 민화 60여 점을 통해 전라도 민화의 역사적 가치와 지역적 특색을 조명하고 민화에 담긴 선조들의 삶과 정서를 시

민들에게 소개한다.

과거 전라도는 민화와 서예, 정통회화 등 서화 문화가 발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배경에는 우수한 품질의 한지 생산 기반이 자리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 서유구가 저술한 백과전서 ‘임원경제지’에서도 한지의 주요 생산지로 전주와 남원, 현재 나주시역인 남평이 언급될 만큼 나주는 일찍부터 서화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나주는 문자도와도 깊은 인연을 지닌 지역이다.

작품에는 건강과 장수, 행복과 평안을 바라는 선조들의 소망을 비롯해 자연과 삶을 바라보는 시선, 전통적인 미감과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나주=조현정 기자 pose007@gwangnam.co.kr

진도, 군민과 농어촌 기본소득 필요성 공유

전문가 초청 교육...제도 이해와 공감대 높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과 고두갑 정책지문위원을 초청해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의 생활 안정

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갖는 의미를 공유했다.

또 제도의 취지를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군민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 의지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보성, 벌교 태백산맥 꼬막거리 활성화 모색

축제 대비 친절·위생 교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은 최근 벌교 태백산맥 꼬막거리 음식점 8개소의 영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친절·위생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으로 제2회 벌교꼬막축제를 앞두고 꼬막거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방문객을 맞이할 음식점의 서비스와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축제와 연계한 꼬막거리 홍보 방안과 ‘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달’ 홍보 부스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한 영업주들의 의견을 들었다.

식품위생법령, 영업자 준수사항,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단계별 위생 관리 요령, 친절한 고객 응대 방법도 다뤘다.

군은 앞서 벌교 태백산맥 꼬막거리 명품화 사업을 통해 음식점 위생 환경 정비, 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달 운영, 영업주 간담회, 친절·위생 교육, 음식 거리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벌교 태백산맥 꼬막거리 영업주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통해 명품 음식문화거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